



2019년 전 세계 의료비 전망 및 시사점

김혜란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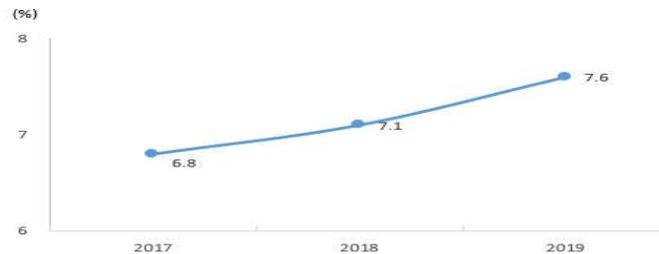
연구

전 세계 의료 동향 조사에 의하면 2019년 의료비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적인 차이가 있음. 향후 5년 내 약제비가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과도한 서비스 및 치료는 일인당 의료비를 견인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임. 순환기(심혈관), 근골격계 질병 그리고 암은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앞으로도 암은 가장 많은 의료비를 유발할 질병으로 보고 있음. 보험회사는 증가하는 의료비를 경감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상위 3대 질병 이외의 질병에 관심을 기울이고, 각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질병코드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전 세계 의료 동향 조사)에 의하면 2019년 의료비)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19년에 예상되는 의료비는 7.6%로써 2018년 보고된 의료비보다 0.5%p 높으며, 2017년 6.8%에서 증가하고 있음

〈그림 1〉 전 세계 의료비 추세(2017년~2019년)



자료: Willis Towers Watson, Global Medical Trends Survey Report, 각 연도

1) 본고는 2019 Global Medical Trends Survey Report를 발췌 요약하였음. 보고서의 설문조사는 77개국 307개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18년 7월~9월 시행되었으며, 응답자는 아메리카 22%, 아시아 태평양 37%, 유럽 24% 그리고 중동 및 아프리카 16%로 구성됨
 2) 1인당 GDP의 가중치로 불가상승률 및 환율을 고려하여 전망함

■ **의료비 추세는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은 여전히 민영의료비의 증가가 가장 낮은 국가임**

-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나라는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의료비의 가장 큰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중동과 아프리카로서 2018년도 의료비가 8.5%~9.9% 정도였으며, 2019년도에는 12.4%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유럽은 사회보장 의료시스템이 존재하여 민영의료비가 낮은 증가율을 보이지만, 유럽 내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 프랑스, 스페인, 영국과 같은 나라는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해 민영의료비가 관리되지만, 헝가리와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공공의료에 의한 제약이 존재하여 환자들이 민영의료보험을 많이 이용함

■ **전 세계적으로 향후 5년 내 약제비가 의료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과도한 서비스 및 치료는 일인당 의료비를 견인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임**

- 아메리카 지역의 보험회사 80%가 약제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보험회사 56%, 중동 및 아프리카 보험회사는 66%가 2019년에 약제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음
- 전 세계 응답자의 70%는 의료종사자들의 과도한 서비스 추천으로 과도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면 보험가입자의 경우엔 52%만이 과도한 치료를 하고 있다고 인식함
- 새로운 의료 기술 또한 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음
 - 응답자의 65%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의료비 증가의 3대 원인³⁾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응답자의 48%는 의료제공자의 이익추구 동기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 이는 대규모 보험금 청구의 증가로 이어져 보험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응답자의 15%만이 이를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 **순환기(심혈관), 근골격계 질병 그리고 암은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앞으로도 암은 가장 많은 의료비를 유발할 질병으로 보고 있음**

- 전 세계 응답자의 54%와 49%는 각각 순환기(심혈관) 질병과 근골격계 질병을 현재 보험금 청구 빈도가 높은 질병으로 보았으며, 보험금 청구 심도가 가장 높은 질병으로는 현재 응답자의 74%가 암을 꼽았음
- 암은 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그리고 중동 및 아프리카 4개 지역 모두에서 향후 5년 동안 가장 많은 의료비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보험회사의 79%가 암을, 59%는 순환기(심혈관) 질병을 그리고 50%는 근골격계 질병을 주요 의료비용 발생의 원인으로 보고 있음
 - 4지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곳은 아메리카 지역으로 응답자로 68%가 암이 의료비용이 가장 많

3) 약제비, 의료종사자에 의한 과도한 서비스 및 치료와 더불어 새로운 의료 기술을 의료비 증가 3대 원인으로 보고 있음

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았으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지역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응답자로 82%가 위와 같이 응답함

- 이외에도 당뇨병, 내분비 질환 그리고 영양 및 대사 질환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발생률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정신 질환 및 행동 장애의 보험금 청구 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아메리카 지역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당뇨병, 내분비 질환 그리고 영양 및 대사 질환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 발생률과 비용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압과 순환기(심혈관) 질병과 함께 이를 3대 원인으로 보고 있음
 - 이에 보험회사에서는 당뇨병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험회사는 21%만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혀 가장 대처가 늦은 것으로 나타남
 - 유럽에서는 보험회사의 44%가 향후 5년 내 정신 질환 및 행동 장애가 3대 질병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보험회사의 33%가 정신 질환 및 행동 장애가 중요 질병이 될 것이라고 봄

■ 보험회사는 증가하는 의료비를 경감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상위 3대 질병 이외의 질병에 관심을 기울이고, 각국의 상황을 이해하며, 국가적으로 다른 질병코드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압, 순환기(심혈관) 그리고 근골격계 이외에 당뇨병, 정신 질환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질병의 예방 또는 개선을 위한 투자를 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국가와 지역에 따라 높은 의료비를 유발하는 주된 질병, 의료시스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의료비 통제 등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고용주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자체 개발한 질병코드가 아닌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질병코드⁴⁾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질병에 대해 투명성과 일관성 있는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kiri**

4) 국제 질병 코드(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가 존재함